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7)

조국통일의 대강을 밝혀주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넋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국통일 3대헌장 정식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었다.

로작의 글줄마다에는 온 겨레의 통일열의를 고조시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그의 철석의 의지가 넘쳐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 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어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집대성 하시었다.

또한 로작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 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라는 데 대하여,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라는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음로 로작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며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대하여서와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해결할데 대하여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어 온 겨레를 조국통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진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명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고 통일을 위한 길에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명실공히 온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에서 한없이 고귀한 유산으로, 튼튼한 밑천으로 조국통일사에 길이 빛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온 겨레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로작사상대로만 하면 민족이 살길이 열리고 통일의 날도 반드시 다가 올것》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크나큰 용기를 새겨놓은 민족의 애국애족의 해불》,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

을 밝혀준 통일대강》이라고 높이 칭송하시었다.

미국 하바드대학의 한 고급연구원은 1997년 8월 30일 방송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시었다.

《북조선 김정일명도자가 얼마나 강한 사회주의고수론자이고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것은... 최근 발표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보아도 알수 있다. 논문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민족대단결 5대방침 제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

요직 조선반도의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진지하게 강조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통일문제, 민족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진로를 밝힌 조국통일총서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 제시

구와 리익을 찾지아래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남기신 력사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

요의 기치아래 이룩하여야 한다는것,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그리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 등이다.

투철한 민족자주의 원칙과 열렬한 애국애족의 일념, 강렬한 통일 의지로 일관된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일치한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거리들에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민족이 단결할 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될것이다》, 《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내용의 대자보들이 나붙어 사람들을 크게 격동시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의 단합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신준호



판문점에 새기신 통일애국의 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 제101(2012)년 3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당시는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북 집전쟁봉장난인 《키 리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엄청난 도발사건들이 끊이지 않던 첨예한 시기였다.

바로 이런 시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판문점에 승엄하게 세워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를 보시었다.

경에하는 그이께서는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돌이켜보시었다.

또한 아버지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었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에하는 그이께서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판문점을 지켜선 전초병들의 병실, 식당,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으며 전초병들이 조국의 판문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에 우리 인민의 발편자를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자신께서는 판문점을 지켜선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은 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친필비를 찾으신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모습에서 통일된 조국을 보았다.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주도하실분은 오로지 김정은최고사령관밖에 없다. 그이를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다라고 저마다 걱정을 터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의 그날 판문점에서 피력하신 통일의지를 심장에 새기시고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었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하신 다음 판문각, 통일각,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을 비롯한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 보시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여주시려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실록에는 교육사업은 국가중의 국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주신 탁월한 령도로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교육사업을 우선시하는 기풍, 교육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교육중시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각 도, 시, 군들에서 대학과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훌륭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차게 전개되는 속에 수많은 교육후원단체들이 대학과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기 위한 작전들을 펼치고있다.

하여 수백개의 본보기학교들이 건설되고 교원대체들이 교육자양성의 원종장담에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실현되었다.

중등일반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여러 부분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수백개의 기술고급중학교(기술반)들이 나오는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기술반)들을 새로 내오게 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끌어올리고 앞선 교수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는가 하면 교육과학분야의 최신자료들을 신속히 보급하고 산물분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관리정보체계를 도입하는 활

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벌여지고있다.

이러한 속에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과학기술보급지점에서 전진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이바지할 원격교육들이 높은 수준에서 실속있게 진행되고있으며 학습용품들과 학습장들을 생산하는 통풍학습용품장, 민들레 학습장공장과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을 보장하는 각지의 가방공장, 방직공장, 피복공장들에서 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그리고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해바라기》상표를 단 각종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와

《민들레》학습장을 비롯한 학습품들을 가슴 한가득 받아안고 좋아하는 유치원, 육아원, 예숙원 어린이들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인사를, 소학교 학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하늘땅에 메아리치고있다.

참으로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정치로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나라의 국력과 미래는 교육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우선선대사로 내세우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

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101(2012)년 6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주제103(2014)년 8월 3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과 말씀들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해 주제101(2012)년 9월

공화국의 교육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2년제무교육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교육중시열풍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초등학교를 찾으신 그날에는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학원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한겨울의 맨발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개건된 평양 교원대학을 찾으시어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임

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교원대학들이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또한 평양건축대학을 현지지도 하시며 인재양성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이고 교육조건은 거름과 같다고 말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건축인재양성에서 밀거름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새 세기 교육혁명으로 공화국의 만년토대를 다지고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교육으로 흥하고 번영하는 21세기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